

# 임시 이사회 회의록

□ 개최일시 : 2013년 9월 10일(화) 10:00-11:30

□ 개최장소 : 이랜드빌딩 회의실

□ 총이사수 : 8명

□ 출석이사 : 5명(이경준 이사, 이태웅 이사, 윤형주 이사, 박영희 이사, 배극수 이사)

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 <제 1호 의안> 산하시설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 심의의 건

▶ 이경준 이사장은 2013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이 종료되는 산하시설인 성북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에 대해 의안을 개진하고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성북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 사유와 그동안의 진행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.

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지난번 이사회 때 재 수탁 및 법인 전출금이 당연시 심의되고 결정 되었었으나, 다시금 재단에서는 그 동안의 전문가 자문과 재단 자체 연구,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(자료 참고)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 수탁을 포기하는 결론을 도출 했다. 현재 국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문제 및 복지관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 변화 그리고 이랜드복지재단의 향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방향이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 등 노인중심의 시설들로 선택과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위탁 종료되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신청을 전략적으로 포기하여 반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▶ 이태웅 이사는 향후 이랜드복지재단의 수탁방향이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시점에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재수탁 신청 포기에 대해서 동의하다.

▶ 박영희 이사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동안 종합복지관으로서 모델이 될 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향후 이랜드복지재단의 복지방향과는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인복지분야의 뛰어난 롤모델 및 지역복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길 바라며,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료에 따른 반납에 대해 동의재청하다.

▶ 배극수 이사는 위 내용에 동의하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에 동의하다.

▶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'산하시설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반납 심의'의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, 가결하다.

▶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을 반납하게 됨을 선포하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.

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 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폐회시각은 11시 30분

2013년 9월 10일



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

이사장 이 경 준



이 사 이 태 응



이 사 윤 형 주



이 사 박 영 희



이 사 배 극 수

